

▶ 제21회 전북자치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네가 가진 재능, 맘껏 펼쳐라’



지난 15일 오후 1시, 전주 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제2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그룹사운드 부문’에서 김승곤(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운드 참가팀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전주 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제2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댄스 부문’에서 김승곤(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회장,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댄스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룹사운드 부문 ‘블루웨건’ 대상 영예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회장 김승곤)에서 주관하는 제2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그룹사운드 부문’이 지난 15일 오후 1시, 전주 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열렸다. 이번 그룹사운드 부문 경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주매일신문사가 후원했다. 국민MC 서정우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팀이 참여해 열띤 경합 끝에 블루웨건 팀이 대상을 수상받았다.

최우수상 - ‘귀차니즘’ 우수상 - ‘두더지놀이터’ 인기상 - ‘완산청소년센터’ 차지했다. 전주교 귀차니즘 팀은 최우수상, 두더지놀이터 팀이 우수상, 완산청소년센터(신흥교) 팀이 인기상을 수상받았다. 해성고 시나브로 팀은 장려상을

수상받았다.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블루웨건’ 팀 리더 이현서군은 수상소감을 통해 “연습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팀원들과 꼭 1등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기대한 대로 성적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노력했던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더 정진해 더 좋은 블루웨건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댄스 부문 ‘천상’ 1위 차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에서 주관하는 제2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댄스 부문’이 지난 15일 오후 4시, 전주 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열렸다. 댄스 부문 경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매일신문사가 후원했다. 국민MC 서정우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9팀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날 경연에서 대상을 영광은 전북중학교 ‘천상’ 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 - ‘Freeze’ 우수상 - ‘페블러스’ 장려상 - ‘AD DANCE’ 전주 중앙여고 ‘Freeze’ 팀은 최우수상, 페블러스팀이 우수상을 수상 받았으며, 어뮤즈댄스 아카데미 ‘AD DANCE’ 팀은 장려상을 수상받았다.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천상팀은

“대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순위가 나온 것 같아 너무 좋다.”며 “앞으로 더 연습하고 노력해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승곤(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그룹사운드와 댄스 부문 경연을 같은 날에 열게 됐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문화예술관광사업·글로벌 K-컬처 콘텐츠 융합

전북문화관광재단, 원광대 글로벌 K-컬처 선도 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4일 관광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원광대학교 글로벌 K-컬처 선도 융합인재양성사업단(사업단장 강연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경운 대표이사와 김정배 부단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내 문화예술관광 사업과 글로벌 K-컬처 콘텐츠의 융합 및 공동 기획, △지역 문화자원·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글로벌 K-컬처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전문 인프라 상호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사업단과의 협업 시너지를 통해 도내 문화·예술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연호 단장은 “재단과의 협력을 통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4일 관광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원광대학교 글로벌 K-컬처 선도 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 전북만의 특별한 글로벌 K-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기획정책팀(063-230-741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통문화전당,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와 ‘맞손’ | 품새 경연·문화 프로그램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14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병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통문화의 가치와 정신이 담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첫 후속조치로 ‘제17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에서 태권도 품새 경연 및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우리 지역의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를 세계 각국의 태권도인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열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한국전통문화전당 업무 협약식.

이병하 조직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의 관심도와 가치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영 원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태권도와 함께 전통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세계인들에게 홍보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국기(國技)인 태권도와 전통종이인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오는 7월 17~23일 무주태권도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장수 춘송리 무덤군 학계 ‘이목집중’

발굴성과 후 5차례 현장설명회 전문가들 현장서 무덤군 살펴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규모의 신라 무덤군으로 알려진 ‘춘송리 무덤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이어지며, 전공의 전문가들이 장수군을 찾고 있다. 지난 4일 춘송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성과가 보도된 이후 5차례의 현장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미 국가유신청 역사유적과(김명준 과장 등) 관계자들과 역사·고고학에서 명성 높은 최병현(前 송실대) 교수, 최원규(前 원광대) 교수가 1차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무덤군을 살펴보았다. 2차 현장설명회에는 이희준(前 경북대) 교수, 주보돈(前 전북대) 교수, 김세기(前 대구한의대) 교수가 참석해 영남지방의 신라 무덤과 비교하고 자문했다. 이어 윤덕현(前 전북대) 교수, 한수영(고고문화유산연구원장) 원장, 노기환(前 전북대 학예연구관)이 3차 설명회를 찾았고, 4~5차 현장설명회에는 국립전주박물관(박경도 관장 등) 관계자와 국가유신청 문화유산위원인 홍보식·김낙중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위원인 조대연 교수와 정삼기 위원 등이 방문한 바 있다. ‘장수 춘송리 무덤군’은 도내 최대 신라 무덤군으로 침령산성 동북쪽 산 줄기를 따라 육안으로 확인되는 무덤만 15기 이상이다. 또한 그 일대 수십 기의 무덤이 밀집 분포해, 지난해 일부 시굴조사를 통해 단일 무덤 9기가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는 잔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4호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름 15m 내외의 대형 무덤이 도굴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돼 눈길을 끈다. 무덤 내부에서는 굽다리 긴 목항아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규모의 신라 무덤군으로 알려진 ‘춘송리 무덤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5차례의 현장설명회가 진행됐다.

(사진=장수군청 제공) 리(臺附長頸壺), 굽다리 점시(高杯), 병(瓶), 토령(土鈴), 발형토기 등 22점의 신라토기와 쇠손칼(鐵刀), 관못(權釘) 등 9점의 철기가 출토됐다. 특히, 무덤의 입구에서 확인된 ‘훈’은 한국의 전통 공명 악기로 매장행위와 관련된 희귀한 유물로 알려져 있다. 5차 현장설명회에서 송주섭 부군수는 “학계의 여러 전문가가 춘송리 무덤군의 역사성과 가치 확인을 위해 장수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의 역사 문화가 재정립돼 장수의 문화유산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 찾은 학자들은 고대사회 장수지역의 특색있는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발굴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추가학술연구를 통해 숨겨져 있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길 바란다며, 침령산성과 더불어 ‘국가사적’ 범위 확장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26일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이야기 손님은 박강용 옷칠장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6월의 이야기 손님으로 박강용 옷칠장을 초대해 ‘옷칠공예’는 시간의 예술,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라는 주제로 그의 예술 철학과 창작 과정을 공유하고, 옷칠의 가치와 효능을 느끼고 현재와 호흡하는 전통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 음악 즐기 코너에는 국악그룹 ‘신수동 3평’이 참여한다. 옷칠공예 박강용 장인은 현대적 디자인과 젊은 감성을 담은 작품을 통해 옷칠공예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수동 3평은 가야금 연주자 한수진, 소리꾼 강나현으로 구성된 국악그룹으로, 이번 공연에는 건반 차민영, 타악 김태현이 객원으로 참여해 △삼은 아리랑 등 4곡을 준비해 일상 속 소소한 순간들을 국악으로 새롭게 풀어낸다. /남원=김기두 기자